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거리의 기록.

거리  
다시  
보기

월	바닥자국	24.09.30 10:00	7쪽
	예수와 실	24.07.22 13:00	15쪽
	씽씽이	24.07.22 15:00	19쪽
	아기신발	25.03.03 16:00	35쪽

화	문짝	24.07.23 12:00	39쪽
	대피소	24.10.01 13:00	47쪽
	정류장 창문	25.06.03 18:00	53쪽
	착시의자	25.06.03 19:00	59쪽

수	기호들	24.01.03 10:00	65쪽
	스티커들	23.12.27 13:00	69쪽
	질감들	22.02.02 15:00	73쪽
	벳자국	24.10.02 17:00	81쪽

목	신호등	21.09.30 02:00	85쪽
	웃는 타이어	25.03.06 17:00	91쪽
	질서	24.08.15 18:00	95쪽
	흔적	25.05.22 18:00	105쪽

금	나뭇가지	24.08.23 10:00	109쪽
	감시하는 의자	24.09.20 13:00	113쪽
	부서진 의자	24.09.20 14:00	117쪽
	다리 꼳 사람들	24.01.26 15:00	121쪽

토	다시 만난 씽씽이	24.07.27 13:00	125쪽
	담배기둥	25.05.03 15:00	131쪽
	과거와 오늘	24.07.06 16:00	135쪽
	나뭇잎 창문	25.06.03 18:00	139쪽

일	롯데아울렛	24.03.10 12:00	143쪽
	나무가족	24.08.25 13:00	147쪽
	1인용 문	24.08.11 14:00	151쪽
	간판	24.04.21 17:00	155쪽



# 월

바닥자국

24.09.30

10:00

7쪽

세명대학교 민송도서관 입구 바로 앞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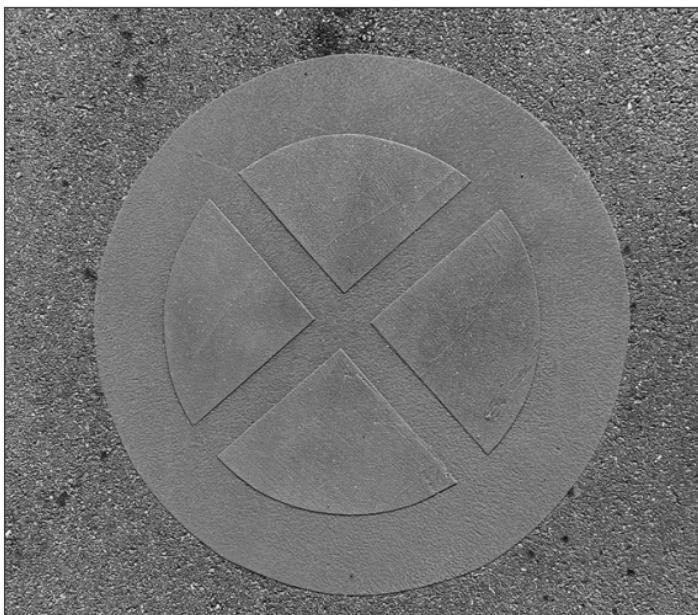


사진 2



우리가 살아가는 거리 바닥에 무언가를 새긴다는 것은 대개 정보를 담거나 알리기 위한 목적성이 강하다. 첫 번째 사진의 경우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촬영된 것으로, 해당 기호가 바닥에 새겨진 이유는 바로 앞에 기차가 지나가는 거리였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사진은 파주시청 근처에서 촬영된 이미지로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운전자에게 예고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큰 다이아몬드 기호를 도로에 새겨 넣은 것이다.

이렇듯 바닥에 무언가 새겨져 있다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차가 돌아다니는 도로라면 더더욱. 하지만 다음으로 소개될 이미지들은 무언가 새겨져 있긴 하지만 한눈에 목적성을 알 수 없어 관찰자의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이미지들이다.

사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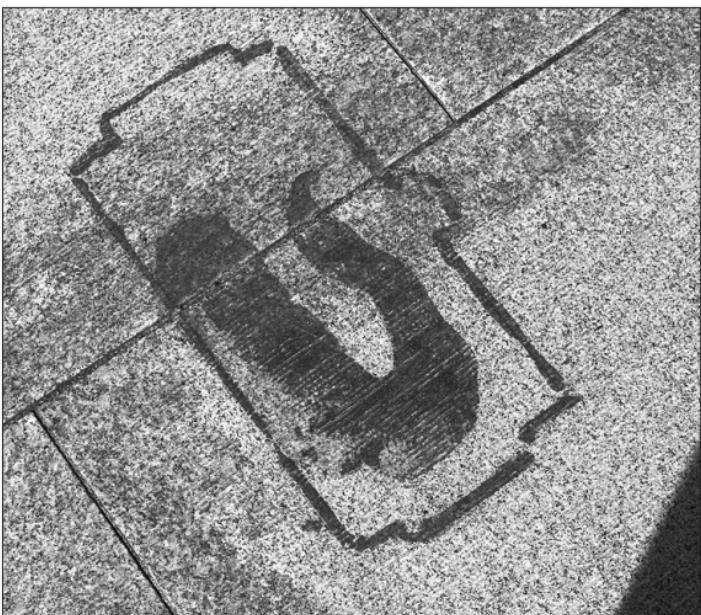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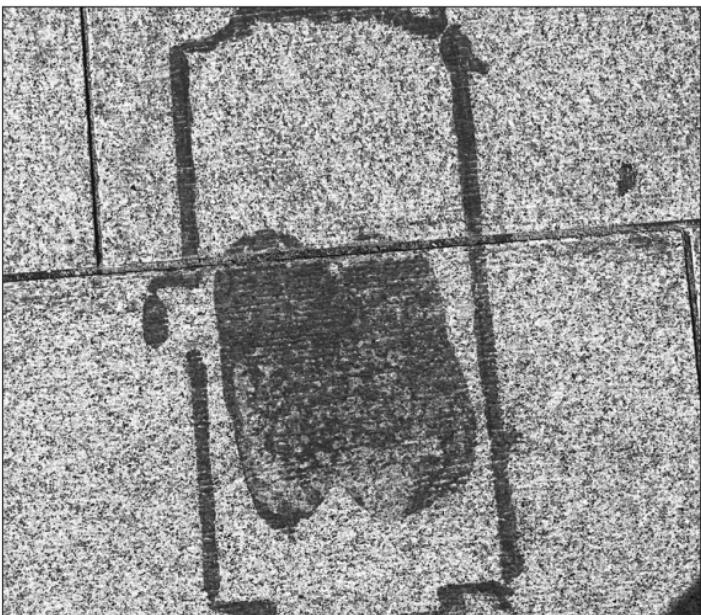


사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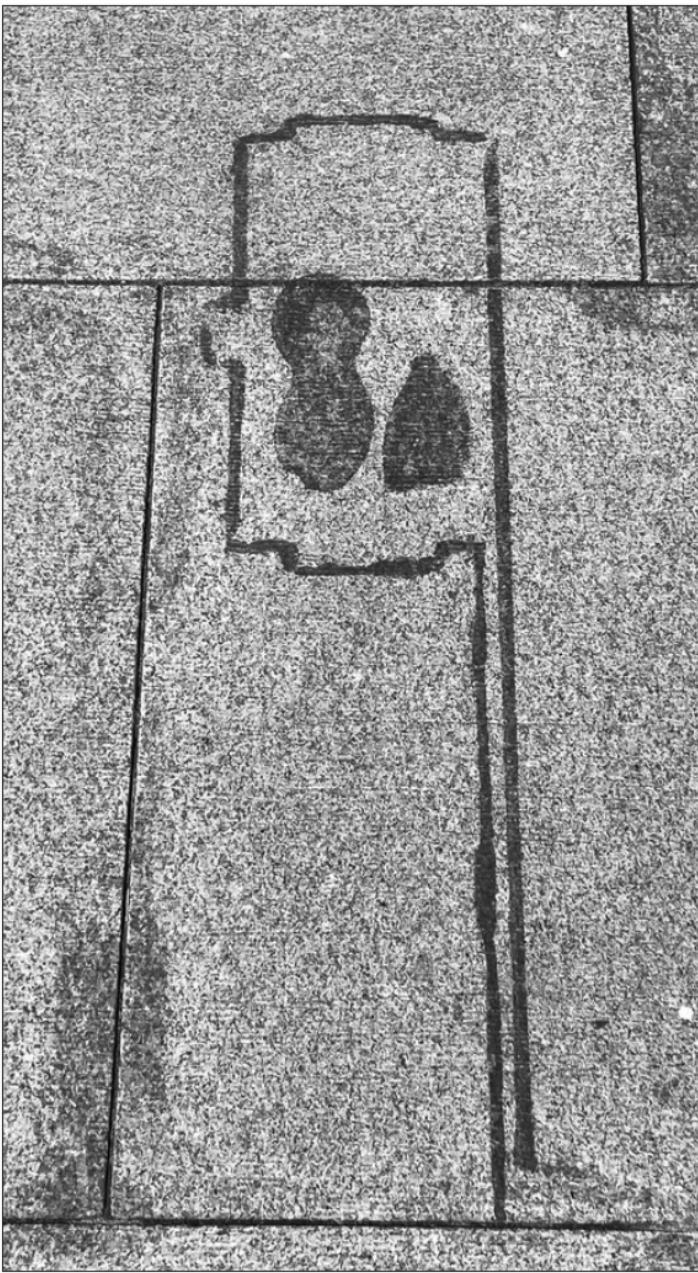


[사진 3]은 세명대학교 도서관 입구를 나오며 촬영한 것으로 발견한 순간 가던 길을 멈추고 홀린듯이 촬영부터 했던 이미지다.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돌바닥에 무언가 새겨져 있기는 한데, 기호처럼 보이기도, 한글 ‘근’의 윗부분이 잘린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가장 궁금한 건 이것이 돌바닥에 새겨져 있는 이유, 목적을 모르겠다는 것이다. 대학교 도서관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목적이 있어 새겨진 것은 아닐까? 건축을 전공하진 않았기에 건축적인 지식에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직접 만져보며 추측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촉감은 굳어버린 껌딱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 약간은 고무 같은 재질로 느껴지기도 했다. 확실한 건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돌과 한 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다음이다. 이 자국이 한 두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진 4, 사진 5

사진5



대학교 도서관의 입구는 꽤나 넓었는데 위 이미지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되어 새겨져 있었다. 하나를 발견했을 때는 무슨 용도가 있겠거니 대수롭게 넘겼지만, 바로 옆에 위치한 두 개의 자국을 연달아 목격하니 과거에 무언가 확실한 용도가 있었을 거란 강한 추측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건축물 시공 과정에서 남겨진 일종의 기준점, 가이드라인이었거나, 하수구나 전선 연결부를 표시해 놓은 것일 수도 있고, 타일이나 석재 시공의 가이드라인일 가능성도 있다. 근데 어떤 회사에서 저렇게 가이드라인을 공들여서 표시해 놓는가? [사진 5]를 처음 목격했을 땐 신호등인 것처럼 보였다.

과거 어떤 타일이 설치되어 있던 흔적이 아닐까? 미끄럼 방지 타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줄을 서는 구역을 안내해 주거나 길안내 타일이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가 떼어진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 모두 사각형 프레

임 가운데에 문양이 새겨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저 문양들은 접착제가 굳어진 흔적 아닐까. 그렇다면 [사진 3]의 ‘근’처럼 보이는 저 문양은 정말 우연하게 만들 어진 기특한 녀석이라고 볼 수 있겠다.

# 월

예수와 실      24.07.22      15쪽  
                  13:00

경기도 파주시 번영로 58-20 겨자씨교회 앞



교회 건물 앞에서는 다양한 물건들을 발견 할 수 있지만, 이 날 내가 발견한 십자가는 조금 특별했다. 흙바닥에 기둥처럼 박혀 있는 기다란 십자가는 이제 운영되고 있는지 도 모를 정도로 허름해진 교회 건물 앞에서 한 쪽으로 기울어진 채 서있었다. 하지만 내가 카메라의 셔터를 누른 이유는 십자가 때문은 아니었다. 십자가 뒤에 아슬아슬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미줄이 보이는가? 겨우 한 가닥의 거미줄만 있었다. 곧 길거리의 쓰레기로 전락 해 버릴지도 모르는 십자가를 거미줄이 살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또 기울어진 십자가가 더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아슬아슬하게 잡아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마음이 거미줄에 지탱 중인 십자가가 아닐까. 난 종교를 믿지도, 종교를 믿는 사람을 싫어하지도 않는다. 다만 종교를 믿지 않은 사람의 시선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누군가를 믿음으로써 삶의 많은 것  
들을 극복해나가고 위로 받는 것처럼 보였  
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의 존재는 사진에  
보이는 저 거미줄이 아닐까.

# 월

씽씽이

24.07.22

15:00

19쪽

경기도 파주시 중앙도서관 뒤 공원 산책로



사진 1

이전부터 다양한 사물들을 찍어왔지만 길을 걷다가 이렇게 오랜 시간 관찰한 사물은 처음이었다. 발견 된 사물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강렬했고, 사건의 냄새를 진하게 풍기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쟁쟁이가 숲 산책로에 버려져 있는 이미지는 자주 봤었기 때문에 익숙한 이미지일 것이다. 쟁쟁이가 부서져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우리에겐 이미 익숙한 모습이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쟁쟁이는 인상이 조금 달랐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냄새가 많이 났기 때문이다. 쟁쟁이의 손잡이는 어디 있는지 주변에 보이지도 않았고, 손잡이 대신 나무 막대기가 꽂혀 있었다. 어째서 이런 꼴이 되었는지, 또 여기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상상도 하기 힘든 모습이었다.

쟁쟁이의 모습을 보고 추측할 수 있는 사건은 분명 누군가 이 근방에서 멀쩡했던 시절의 쟁쟁이를 타고 다녔을 것이다. 그러나 고장 혹은 부서짐이 발생해 쟁쟁이로써의

역할을 못하게 되어 이 숲 속에 버려진 것이 아닐까. 버려진 뒤에는 어린이, 혹은 어른일 수 있는 누군가가 손잡이 쪽에 기다란 나무 막대기를 힘차게 꽂으며 잠깐 가지고 놀았을 수도 있고, 그저 재미로 막대기가 쟁쟁이 아구에 맞는지 꽂아본 실험의 결과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내가 목격하게 된 최종 이미지는 푸른 쟁쟁이 손잡이 위치에 기다란 나무 막대기가 힘차게 꽂혀져 있었다.



씽씽이의 바닥면을 보면 흙이 잔뜩 묻어 있는데, 누군가 올라 탄 흔적일 수도 있고, 최근 파주 지역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바람이나 비로 인해 생성된 자연적인 흙 자국일 수도 있다. 저 푸른 씽씽이가 이곳에 오게 된 경위도 한번 상상해보자. 저곳은 내리막 경사에 걸쳐져 있는 부분이었다. 그렇다면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곳에 원래 세워져 있다가 누군가가 길을 걷다가 재미로 밀어서 저 위치에 딱 걸친 것은 아닐까? 혹은 처음 씽씽이가 버려진 장소 자체가 여기였을 수도 있다.

조금 더 사물의 아래쪽을 들여다보았다. 흙이 쌓여있는 정도가 상당했고 그렇다고 과한 정도는 또 아니였다. 씽씽이 하부 쪽에 고장 난 부분이나 파손의 여부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마 높은 확률로 씽씽이의 손잡이 부분이 파손되어 버린 것이거나, 혹은 그냥 분리수거하기 귀찮았던 누군가가 동네 뒷산에 멀쩡했던 씽씽이를 대충 버려

놓았는데 산에 놀러 온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손잡이를 파손시켜 손잡이의 행방이 묘연해진 걸 수도 있다. 확실한 건 근처에 손잡이가 보이지 않았으니 원래 있던 장소가 여기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진 3



하부 쪽 바퀴를 관찰해 보다 발견한 또 다른 부분이라면 꽤나 거칠게 사용한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왼쪽 바퀴의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다. 원 주인이 쟁쟁이를 험하게 타는 스타일이었을 수도 있고, 버려지고 난 뒤 내리막길에서 누가 굴려서 생긴 상처일 수도 있다. 어쩌면 손잡이가 부서져 이 쟁쟁이를 버린 것이 아닌 왼쪽 바퀴가 고장나 버렸을 가능성도 생긴 것이다. 만약 왼쪽 바퀴가 고장 나서 이 쟁쟁이가 버린거라면,

버려졌을 당시 쟁狞이의 손잡이는 멀쩡했을 가능성도 있다.

오른쪽 바퀴 상태와 왼쪽 바퀴 상태의 상당한 차이는 쟁狞이에게서 유일하게 찾을 수 있던 팩트였다. 위 사진을 잘 살펴보면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에 쌓여있는 흙의 양이 다르다. 이는 쟁狞이에 발을 올릴 수 있는 플라스틱 발판에서도 똑같이 드러나는데, 오른쪽 구역에 비해 왼쪽 구역에 흙이 더 많이 쌓여있다. 최근 비가 많이 왔을 때 쟁狞이를 향해 비와 흙이 바람을 타고 오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었을 수도 있다. 상상을 더 확장해보면 이 쟁狞이가 원래 세워져 있지 않았고 어디 풀 속에 왼쪽으로 눕혀져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쟁狞이 하부에 뒷바퀴를 밟아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었는데 이 역시도 현재는 없어진 상태이다. 버려졌을 때 브레이크가 없어졌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버려지게 된 것일까? 가능성은 관찰할수록  
끝도 없이 넓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쟁쟁이의 하이라이트인 손잡이 쪽을 관찰해보자. 이곳에는 나무 막대기라는 인위적인 흔적이 남겨져 있었다. 분명 어떠한 사건이 존재했던 것 같은데, 나무 막대기에 힘을 줘서 얹지로 꽂으면서 생긴 건지는 몰라도 벌어진의 흔적이 있었다.

이 원인을 알 수 없이 꽂혀져 있는 나무 막대기의 존재로 인해서 푸른 쟁쟁이가 값어치를 가지게 되었다. 그냥 버려져 있는 흔한 쟁쟁이들의 이미지는 사실 특별할 것이 없다. 그저 쓰레기다. 하지만 이 푸른 쟁쟁이는 분명히 이 장소에서 무언가 말을 하고 있었다. 이 나무 막대기가 그냥 여기 꽂혀 있을 리가 없고, 이 위치에 도착하게 된 경위 등, 내가 촬영한 이 쟁쟁이에는 알 수 없는 ‘사건’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평소에는 이런 이미지들에 절대 손을 대보지 않지만 저 나무 막대기가 작은 힘으로도 뽑히는 지만 알고 싶었다. 정말 저 플라스틱의 벌어짐이 강한 힘으로 인해 생긴 상처가 맞는지,

그리고 나무 막대기를 넣고 빼기 쉬운 정도를 알고 싶었다. 따라서 정말 살짝 힘을 주어 작은 힘으로 막대기를 빼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그냥 빠질만한 막대기가 아니었다. 강한 힘을 줘서 저 구멍에 박아 넣은 막대기였다.

씽씽이에 막대기를 꽂은 사람은 누구일까? 어린아이? 혹은 다른 성인? 아니면 산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할머니나 할아버지? 도대체 누구일까. 저 막대기는 도대체 어디서 구한걸까.

어떤 방식으로 저 나무를 구멍에 박아 넣었을지, 씽씽이를 들고 어떤 각도로 넣었는지, 아니면 그냥 세워둔 상태로 넣었는지, 혼자가 아닌 2~3명이 되는 인원에서 함께 힘을 합쳐 저 구멍에 막대기를 넣을 수 있었는지 등등 다양한 생각이 듈다.



사진 5

이 쟁쟁이를 멀리서 관찰하다가 재미있는 상황이 하나 있었다. 저 멀리 5살은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와 엄마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이 쟁쟁이를 보고 난 뒤 아이 엄마의 반응은 그리 궁금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린 아이의 시선이 더 궁금했다. 어린 아이의 눈은 굉장히 특별하다.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가장 순수하게 바라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흥미로운 사건의 냄새를 잔뜩 풍기고 있는 이 쟁쟁이에 흥미를 느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어린 아이는 곧바로 쟁쟁이를 쳐다보았고, 나무 막대기에 시선을 한번, 그 다음 쟁쟁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손을 이용해 쟁쟁이를 만져보려는 순간, 옆에 있던 그녀의 아이 엄마는 곧바로 어린 아이를 막아섰다. “그거 만지면 더러워~, 지지야 지지!”라는 말을 뱉었고, 어린 아이는 쟁쟁이에 대한 흥미를 잊어버린 채 엄마의 뒤를 따

라갔다. 분명 어린 아이는 쟁쟁이를 목격한 순간 엄청난 흥미를 느꼈다. 흥미에서 그치지 않고 관찰하며, 사물에 대해 직접 만져본 뒤 탐구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아이 엄마의 말 한마디에 아이는 흥미를 잃고 엄마와 함께 내 앞에서 멀어졌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다. 어린 아이의 흥미가 순간 조작되고 통제되어 마치 원래는 쟁쟁이에 관심도 없던 사람처럼 쟁쟁이를 차갑게 지나치는 그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인상깊던 순간이다.

# 월

아기신발 25.03.03  
16:00 35쪽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갈미 1로



사진 1

학교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사진 1]에서 보이는 울타리 뒤로는 아파트 단지였고 바로 앞은 차도였다. 길게 늘어져 있는 울타리 한 가운데 아주 작은, 내 손바 닥만한 아기신발이 수줍게 놓아져 있었다. 바람이 조금 불던 날씨였는데 기가 막히게 저 위치에 서 있었다.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는가. 평소처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부터 시작했다. 난 보통 내가 발견한 위치에서 우선 한 장을 촬영한다. 카메라의 높이도 내 눈 높이에 정확히 맞춰서 바라본 시점 그대로 촬영한다. 그 뒤로 가까이 가서 한 장, 오른쪽, 왼쪽, 밑, 위에서 한 장씩, 마지막으로 내가 걸어온 반대편에서 한장을 촬영한다. 절대로 발견한 사물을 만지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등 임의적인 조작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촬영된 저 아기신발은 사진상으로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도대체 아기신발

사진 2



이 왜 여기에 있는가? 어떻게 쓰러지지도  
않고 저 구도로 누가 저기에 놓을 생각을 했  
을까? 굉장히 유머스러운 사물이었다. 가끔  
길을 가다가 이미지가 유머스러워서 촬영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기신발도 그것이었  
다. 이런 사물들은 깊이 관찰하거나 상상을  
해보진 않는다. 바라보았을 때 재미있으면  
그걸로 된거다.

# 화

문짝	24.07.23 12:00	39쪽
----	-------------------	-----

경기 평주시 아동로 30

사진 1



이번 주인공은 문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은 왔다 갔다 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일종의 통행 수단이다. 타인의 출입과 통행을 통제하고 제한하기 위한 용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진 1]의 문은 과연 ‘문’이 해줘야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가?

설명하기 쉽게 이제부터 사진에 보이는 문에 ‘쓸모없는 문’이라는 이름을 지어 줄 것이다. ‘쓸모없는 문’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문을 굳이 여기에 설치한 이유가 뭘까?’, ‘설치한 이유가 있다면 집주인은 돈을 쓰면서까지 설치한 이유가 무엇일까?’였다. 방범용으로 문을 설치했다고 하기에는 계단 옆쪽이 훤히 뚫려있어 무의미해 보인다. 만약 이전부터 계단을 통해 길고양이나 강아지들이 무단 침입을 하는 게 불편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계단 옆쪽을 통해 현재도 충분히 침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방범용으로 설치

를 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쓸모없는 문’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주택 단지였기 때문에 옆에 들어서 있는 계단이 붙어 있는 구조를 가진 다른 주택들도 몇 곳 있었다. 하지만 ‘쓸모없는 문’처럼 설치되어 있는 ‘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요즘 외부 계단에 이렇게 문짝을 달아놓는 것이 내가 모르는 유행인가 싶어 다른 주택가들도 돌아다녀 봤지만, 역시나 위 사진과 같은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사진 2



사진 3



[사진 2]에 보이는 문은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이다. 건물 사이의 틈을 활용해 물건을 보관하거나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들은 거리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이처럼 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 틈에는 보통 상가 관리자가 문을 설치해 놓는 경우가 있다. [사진 2]의 문은 문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 좌우 벽이 완전히 막혀 있어 문 위로 점프해 넘지 않는 한 반대편으로 갈 방법이 없다.

이처럼 정상적인 ‘문’을 본 뒤 오늘의 주인공인 ‘쓸모없는 문’을 다시 보면, 확실히 이상한 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겉모습은 분명 문이지만, “문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답하기 어려워 보인다.

집은 누구에게나 매우 개인적이고 침범당하고 싶지 않은 공간이다. 특히 담벼락 없이 정문이 바로 노출된 형태의 개인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따라서 집주인이 원했던 것은 ‘쓸모없는 문’을 설치해 집과 외부 공간의 분리를 시도한 것이 아닐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과 바로 연결된 계단까지도 자신의 영역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쓸모없는 문’의 존재로 인해 완벽한 보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집과 연결된 계단 사이에 경계가 생겼다. ‘쓸모없는 문’이 없었다면, 누구나 쉽게 계단을 오를 수 있었을 것이며, 집주인 입장에서 자신의 집 영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계단이 거리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쩌면 집주인은 문 옆에 벽까지 세우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큰 벽을 세워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큰 공사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며, 바로 옆에는 공동주택 건물까지 있는 상

황이기에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반쪽짜리 문처럼 보일지라도, 집주인이 원했던 ‘공간의 분리’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완벽한 방범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 계단을 침범하려면 계단 옆 손잡이를 뛰어넘어야 하지 않는가. 상당히 수상해 보일 것이다. 우리 눈에는 문으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문’처럼 보일지라도, 집주인에게는 집 정문과 계단을 지켜주는 ‘사랑스러운 문’일지도 모른다.

# 화

대피소	24.10.01 13:00	47쪽
-----	-------------------	-----

파주 출판도시 지혜의 숲 주차장



대피소



대피소  
SHELTER

nơi trú ẩn | พื้นที่อพยพ | 应急避难场所 | 待避所

↑ 2.1m



거리에서 새로운 기호를 발견하는 순간은 늘 즐겁다. 수십년간 눈에 익었던 대피소 기호에 변화가 찾아왔다. 삼각형 세 개가 한 개로 바뀌었고 대피소 글자의 두께도 두꺼워졌다. 약간은 장식적인 서체로 변경된 것 같다. 기존의 대피소 기호가 아무래도 눈에 익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 새로운 대피소의 기호도 만족스럽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던 로고나 기호가 바뀌게 되면 거부감이 생기길 마련이지만, 새롭게 바뀐 대피소 기호는 그다지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 기호보다 더 ‘대피소’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대피소’스러운 기호란 무엇인가? 그 이전에, 대피소라는 공간은 무엇인가.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모이는 공간이 대피소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대피소 기호는 평소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뺏어야 한다. “이곳이 대피소다. 너희는 나중에 이 장소로 와야한다.

그러니 나를 기억해라.” 이 말을 전달하는 게 대피소 기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 평소에 사람들의 시선을 강제로 라도 뺏어 대피소라는 기호를 사람들 눈 앞에 들이 내밀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기 이전의 대피소 기호보다 훨씬 더 ‘대피소 기호’에 걸맞다고 생각한다. 변경된 서체와 유광으로 된 빨간색 배경 덕분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이전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끌고 있다.



# 화

정류장 창문 25.06.03 53쪽  
18:00

-----  
안양남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인덕원 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도중 발견한 정류장 창문이다. 버스 정류장의 벽을 보면 늘 의자 뒤에 이런 공간이 존재한다. 보통은 유리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내가 발견한 이 정류장 창문은 흔적도 없이 유리가 사라져 있었다.

이 창문이 재밌었던 점은, 처음 발견했을 땐 유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곁에 붙여져 있었던 스티커가 시간이 지나 떼진 줄 알았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것은 모서리에 아직 붙어 있던 실리콘들 덕분이 아닐까. 실리콘들이 정확하게 유리를 잡아주는 것처럼 굳건히 서 있어 당연히 유리가 존재하는 줄 알았다.

조금 가까이서 보면 정말 유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사실 정류장 창문은 실제로 가서 봐야 착시가 일어날 것이다. 외부에 있는 것이기에 아무래도 그림자의 영향

도 있을 것이고, 창문의 반대편은 해가 들어오지 않아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명도 차이가 있어 실물과 사진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 화

착시의자	25.06.03 19:00	59쪽
------	-------------------	-----

롯데마트 의왕점 앞 벤치



사진 1

롯데마트 의왕점 바로 앞에서 발견한 이 의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의문을 안고 있다. 의자가 설치된 바닥은 살짝 기울어져 있었고, 그 기울기에 맞춰 의자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만 문제는 기울어진 바닥에 의자가 수평으로 설치가 되었는지다. [사진 1]을 보면 의자가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른쪽 다리의 길이가 왼쪽 다리 보다 약간 길게 설계되어 있는데, 아마 의자를 제작한 업체에서도 설치 될 바닥의 기울기를 고려해서 오른쪽 다리의 길이를 왼쪽 보다 길게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설계를 잘못 한 것인지 실제로 의자를 길에서 마주쳤을 땐, 의자가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보인다.

결국 이 의자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애쓴 흔적이 더 도드라지게 보인다. 의자가 설치될 공간은 아주 복합적인 공간이다. 단순히

바닥과 의자의 관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닌,  
의자 뒤에 보이는 길 역시 기울어져 있고,  
기울어진 길에 완벽하게 수평을 이룬 채 세  
워진 건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대비로 인  
해 의자는 실제보다 더욱 원쪽으로 기울어  
져 보이게 된 것이다.

외부 구조물의 수평은 단순히 땅만 기준  
으로 삼을 수 없는, 더 복잡한 문제다.

사진 2





# 수

기호들	24.01.03 10:00	65쪽
스위스 취리히		







# 수

스티커들	23.12.27 13:00	69쪽
----- 스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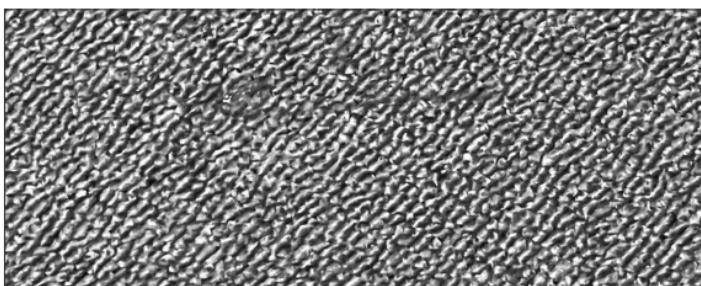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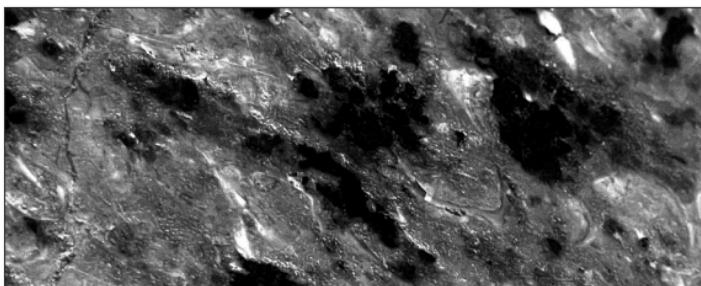






# 수

질감들	22.02.02 15:00	73쪽
가로수길		



내가 질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20년 가로수길에서부터였다. 한 친구와 의류 브랜드인 아더에러 스토어를 가기 위해 가로수길을 방문했었는데, 이때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로수길을 방문했던 날인 걸로 기억한다. 평소 서울이라는 공간에 잘 놀러가는 편이 아니었다. 서울이 너무 혼잡해서이기도 했지만 서울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기계들로 점령당한 도시, 높은 빌딩이 수두룩하고 길거리나 골목길에도 흥미로운 것들이 존재할 수 없는 빠른 호흡을 가진 도시. 서울은 무언가를 활영하고 느끼기에는 너무 빠르고 정신없는 곳이었다. 그런데 친구가 함께 가보자고 했던 가로수길에서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질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로수길을 걸으면서 수도 없이 많은 건물들과 상점들을 입장하고 퇴장했다. 그런데 그 많은 건물들과 상점들을 마주하면서

매 입장과 퇴장의 느낌이 새롭다는 것을 느꼈다. 어떤 공간을 들어갔을 때는 쾌적과 깔끔이라는 것을 느꼈고, 어떤 공간에서는 지저분, 불쾌, 어두운 등의 감정을 느꼈다. 공간에 들어설 때부터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느낀 것에서 난 한 가지 의문을 품었다. “무엇이 내가 공간에 들어갈 때 감정의 변화를 주는가?”. 이 답은 질감에서 찾을 수 있었고 내가 질감 사진을 모으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질감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바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가정집에 들어선다고 생각해보자. ‘문’을 통해 외부에서 내부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집이라는 내부 공간에 들어갈 때 집 안에 펼쳐진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집 안의 냄새, 안에서 들리는 소리, 집 내부의 습함과 건조함 등을 통해 우리는 집안이 풍기는 분위기를 몸소 느끼게 된다. 단순히 외부에서 내부 공간으로 들어간 이 찰나의 순간에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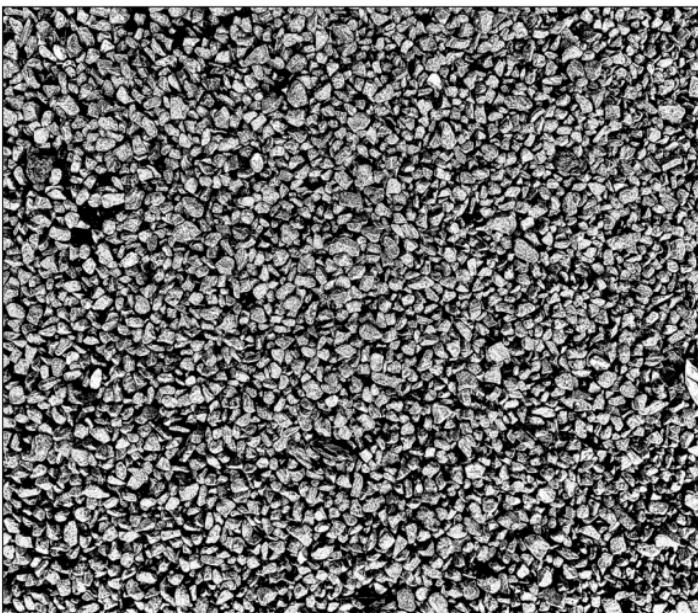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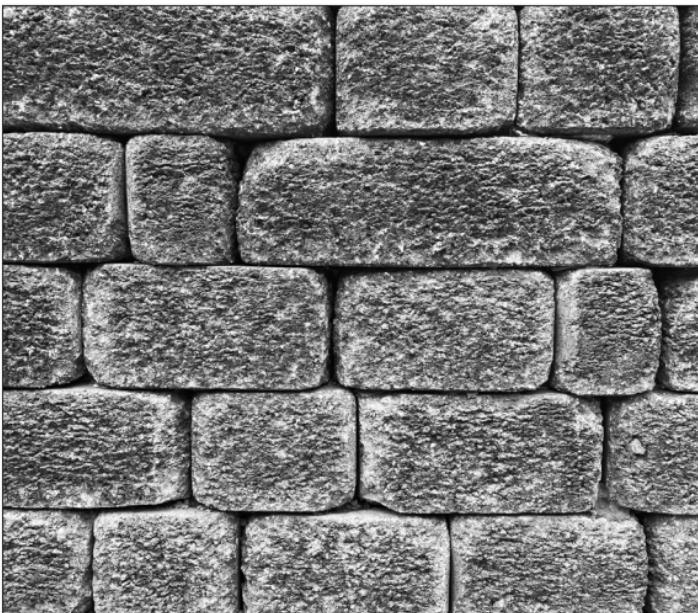
각, 후각, 청각, 등의 다양한 감각들이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공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 개인적으로 난 공간을 인식할 때 시각적인 부분이 매우 예민한 편인데 공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들이 물건도, 사람도 아닌 벽의 질감이었다.

우리 세상은 온통 질감으로 가득 차있다. 나무와 같은 자연물만 생각해 봐도 각자 고유의 질감, 텍스처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공 건축물 자체도 질감이 어떤지에 따라 건축물의 분위기가 바뀐다. 물론 인공 건축물이 자연물과 다른 점이라면 벽돌, 콘크리트, 석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들을 인공적으로 합성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때문에 섞이는 재료로 인해 질감의 결과물이 결정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인공적으로 혼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건축 재료가 등장하기도 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질감들이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인간은 공간 속에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또 공간을 창조하며 살아간다. 건축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공간을 만들고 분리할 수 있게 되었고, 만들어낸 공간안에서 다시 공간을 분리시키며 살아간다. 간단하게 집 내부를 떠올려보라. 집이라는 공간 자체도 이미 만들어낸 공간인데, 그 공간에 거실, 다락방, 주방과 같이 필요에 따라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내지 않는가. 인간에게 있어 공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공간에는 필연적으로 질감이 따라온다. 우리는 공간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카페를 들어갔을 때 이쁘다, 깔끔하다는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 카페 공간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질감’이라는 친구가 분명 한 뜻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걸 촬영하는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난 질감을 관찰하는 행동 자체에 큰 의미를 두

는 편이다. 오늘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공간, 그리고 그런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곧 질감인데 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공간의 분위기를 생성해주는 질감을 한 번도 집중해서 관찰해보지 않는가.



# 수

벗자국	24.10.02 17:00	81쪽
경기도 파주시		



비가 온 다음날 길거리 바닥은 아주 거대한 캔버스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작품의 의도가 있을 수 없는, 작가 미상의 이미지들이 펼쳐져 있다. 오로지 우연적으로 만들어지고 우연적으로 발견되는 빗자국들은 비가 온 뒤 몇시간 동안만 존재하는 희소한 것들이다. 마르기 전까지만 전시되는 빗자국들은 오로지 비라는 자연적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이 재밌다.

이 빗자국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따라줘야 하는데, 도로의 각도(기울기)부터 날씨 온도에 따른 물의 증발 정도, 도로의 색이 물에 비해 어둡지 않아 관측하기 용이한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측자가 언제 빗자국을 목격하는지다.

휘발성이 강한 빗자국이기 때문에 날씨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태가 크게 변화하며,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사라진다.



# 목

신호등	21.09.30 02:00	85쪽
경기도 의왕시 오리나무 1길		



노련한 인공지능에 질문하다, 송승후와 권호준, 2021, 단채널, 영상

신호등이라는 오브젝트를 통해 우리들은 안전하게 통제되며 살아간다. 건너편으로 언제 지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신호등이 정해준다. 신호등은 곧 도로 세계 속 법이자 인간에게 있어 일종의 매뉴얼이다.

익숙해져 버린 거리를 하루에도 수십 번 걷고, 살아오며 수만 번 횡단보도를 마주치고 건너왔겠지만 우리의 보행이 신호등에 의해 통제되고, 거리에 서는 순간 우리의 움직임은 자동차와 함께 그룹으로 묶인 상태로 통제되는데 이것을 쉽게 의식하기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이를 의식한다면 신호등이라는 사물이 색다른 사물로써 다가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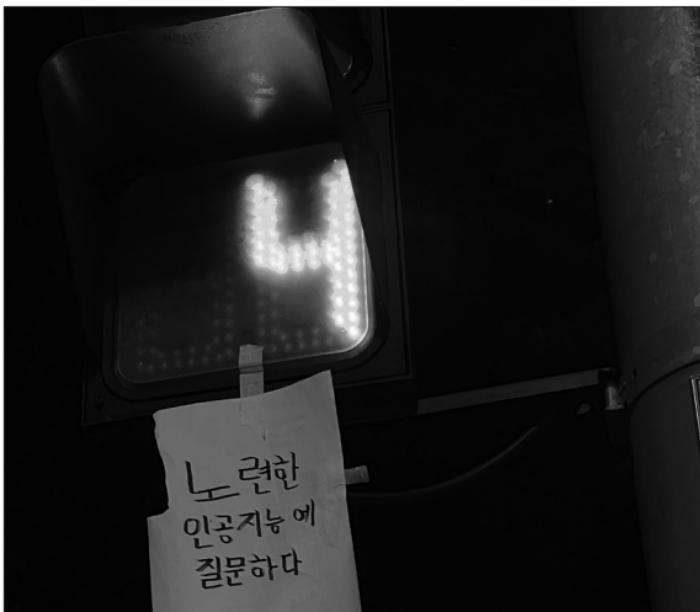
인류 역사에서 종이와 펜은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문자를 기록할 수 있었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준 감사한 도구다. 후대에게 지식들이 전달되고, 다양한 연구와 실험들이 대대로 이어져오면서, 오늘날 우

리는 디지털 시대로 입성하게 되었고,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다.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세상은 이전과는 또 다를 것이며, 새로운 디지털의 시대를 열 것이다. 우린 이런 인공지능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너무나도 많다.

차후 인공지능의 통제하에 우리의 보행과 자동차들의 교통을 책임지게 될 신호등, 인공지능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인터넷(랜선), 인공지능에게는 필요가 없지만 인간의 발전을 도와주었던 아날로그적 도구인 종이와 펜. 이 요소들이 한 공간에서 충돌하게 된다.

**우리가 노련한 인공지능에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

+ 그리고 2025년, 정말 노련해져버린 인공지능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





# 목

웃는 타이어 25.03.06  
17:00 91쪽

경기도 의왕시 오리나무 1길



이 사진은 계원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과 1학년 1학기에 진행된 평면조형 수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촬영한 것이다. 과제는 서로 다른 16장의 사진을 조합해 하나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평소 거리의 풍경과 사물들을 촬영하고 수집하는 데 익숙했기에,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거리로 나섰다. 하지만 하루 종일 도시를 누비며 ‘재미있는 사물’을 찾았다던 경험은 처음이었다. 흥미롭고 매력적인 사물은 대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법. 억지로 재미 있고 매력 있는 사물을 찾으려 하면 모두 거리 깊숙이 숨어버린다.

다만 이 타이어는 우연 속에서 발견된 사물이었다. 하루 동안 약 200장 가까운 사진들을 찍었지만, 만족스러운 장면은 많지 않았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가장 흥미로운 사물은 바로 집 앞에 놓여 있었다. 웃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닌 타이어 하나.

타이어 속 철에 새겨진 형상을 보라. 남성인지 여성인지, 심지어 사람이 맞는지도 분명치 않다. 도대체 이 웃고 있는 형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조차 상상하기 어렵다. 타이어의 내부 공간에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묘하게 인상 깊었다.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건, 이 형상이 마치 사람의 가면을 쓴 듯 보인다는 점이었다. 마치 감정을 잃은 기계 인간처럼 말이다. 입꼬리는 분명히 올라가 있지만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중립적인 표정. 웃고 있지만 감정은 느껴지지 않는다. 감정과 감성에도 휘둘리지 않는 ‘기계 인간’이라니. 얼마나 매력적인가.

# 목

질서	24.08.15 18:00	95쪽
경기도 파주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라는 공간은 보통 무질서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도시라는 공간에는 서로 다른 생김새를 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며, 차도에는 수많은 브랜드의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도시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건물이 있다. 건물 역시 서로 각기 다른 생김새와 색을 가지고 있으며 형태와 크기도 제각각이다.

우린 이러한 도시 속에서 질서를 찾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도시’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시끄러운 소음과 북적이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도시를 들여다보면, 무질서한 공간에 숨어든 질서들은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건물은 오늘날 신도시나 거주 인구가 많은 도시를 걷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건물이다. 내가 촬영한 이 아파트 앞에는 지하철이 다니는 공간

이었고 아파트 단지 밑에는 도보가 형성되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었다. 하지만 다른 난잡한 요소들은 제외시키고 난 아파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촬영했고 비로소 질서 있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아파트에서 보이는 창문들에는 ‘질서’가 보인다. 철저한 계산과 설계 아래 생성된 창문들의 질서는 사실 건축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설계된 창문의 넓이와 높이, 그리고 창문들 간의 간격은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결과이자 건축가가 아파트에 정해놓은 ‘불변의 질서’이다. 건축가가 설계한 창문들의 질서와 규범은 만약 아파트라는 세계가 존재한다면 그 세계에서는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될 것이다.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거 형태도 살펴보자. [사진 2]는 금촌역 부근에서 찾아볼 수

사진 2



있는 공동주택의 건물이다. 공동주택 건물은 아파트에서 보이는 질서와는 다른 인상의 질서를 선보인다. 중앙계단에 위치한 창문과 거실의 창문 크기가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며 방에 존재하는 창문의 형태까지 서로 다른 생김새를 하고 있지만 거실 창문에 달려있는 발코니의 생김새는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질서들이 모여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는 건물이라는 거대한 요소가 존재한다. 건물들은 각기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각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과 질서들이 모여 도시의 무질서한 이미지가 형성된다. 우리가 도시를 바라볼 때 느끼는 무질서함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양한 질서들의 결합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있다.

사진 3



사진 4



사진 5



사진 6



사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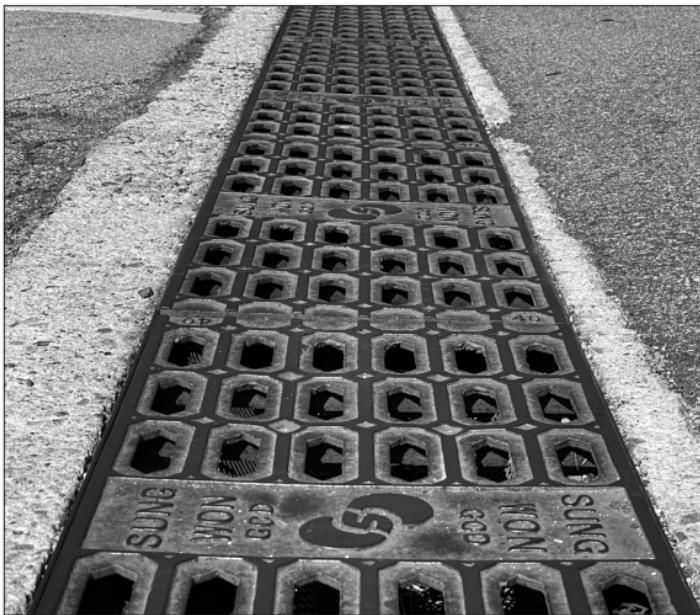


사진 8



건물 자체에만 조명해서는 안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인데 바로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물들이다. 도시에는 수 많은 사물과 기호들이 살아가고 있다. 안내를 돋는 표지판부터 반대 차선과의 경계를 구분짓는 시선유도봉, 공사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주황색의 임시 플라스틱 구조물과 공사장 가림벽, 바리케이드, 조명, 의자, 심지어 수많은 쓰레기들 마저 지금도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물들이다.

시선유도봉은 저런 형태를 띠고 있을 수 밖에 없다. 마치 사람들이 놀이공원에서 어트랙션을 타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질서가 아닐까? 명확한 목적과 안내를 위해 공장에서 가공해 똑같은 규격과 간격으로 오차 없이 만들어져 설치되는 사물들이야 말로 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확한 질서’이다.

# 목

흔적	25.05.22 18:00	105쪽
경기도 의왕시		



우리가 걷는데에는 여러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대개 걷는다는 행위는 어딘가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걸을 때 여러가지 풍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걸을 때 마주하게 되는 자연물과 인공물에는 퇴적과 깨짐 등의 흔적들이 존재한다.

길을 걸으며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흔적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래픽이다. 일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일부는 전적으로 우연에 의해 형성된 결과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려진 이 흔적들을 목격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 금

나뭇가지	24.08.23 10:00	109쪽
경기도 파주시 신안실크밸리 2차 산책로		



이 사진은 폭우가 지나간 뒤 촬영된 것이다. 빗자국을 찾으러 나선 도중 산책로에서 발견한 나뭇가지는 폭우 이후 발견할 수 있는 부서진 나뭇가지들과는 조금 달랐다. 길게 늘어진 노란 줄에 매달린 채 아주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다.

줄이 걸린 나무의 높이도 만만치 않았는데, 아파트 2층 높이는 되어 보이는 나무 어딘가에 줄이 걸려 있었고, 그 끝에 나뭇가지가 매달려 있었다. 누군가 일부로 묶은 흔적은 없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도중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줄은 누군가 일부로 나무에 묶어둔 것일까? 아니면 줄까지도 나뭇가지처럼 폭우 속에서 나무에 걸리게 된 걸까? 사실 줄의 사연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흥미로운 건, 폭우라는 과정 속에서 나뭇가지가 줄에 걸리게 되면서 둘은 폭우 이후 묘하게 얹힌 사이가 되어버린 것 아닐까.



# 금

감시하는	24.09.20	
의자	13:00	113쪽
경기도 파주시		



주차금지

수시로 드나듭니다.



주차금지

수시로 드나듭니다.

# 금

부서진 의자	24.09.20 14:00	117쪽
경기도 파주시		







# 금

다리 꼰	24.01.26	121쪽
사람들	15:00	
프랑스 파리		



WILSON

WILSON

이 사진은 프랑스 파리에서 촬영되었다. 루브르 박물관을 지나 인근의 종합 상가 건물로 향하던 중, 물웅덩이에 비친 건물의 형상이 눈에 들어와 촬영한 사진이다.

유럽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정리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나란히 다리를 꼬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 다리를 꼬는 건 흔한 일이지만, 벤치에 앉은 네 사람이 모두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

특히 유럽 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이상하리만치 자주 다리를 꼬고 있었다. 혹시 다리가 길어서, 그 자세가 더 편한 걸까?



# 토

다시 만난 씽씽이	24.07.27 13:00	125쪽
홈플러스 파주운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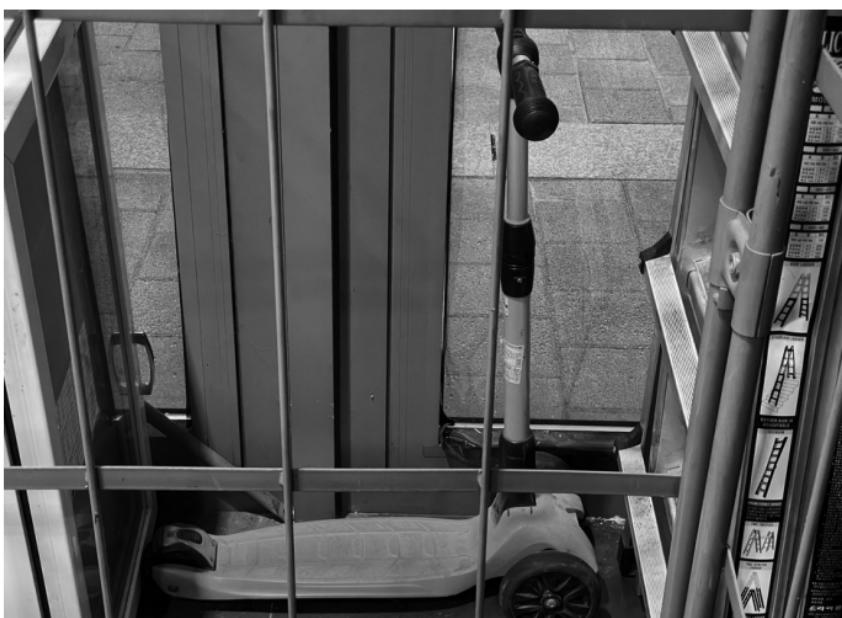
때는 2024년 7월,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급하게 흠플러스 파주운정점 내부에 있는 롯데리아로 도망치듯 들어왔다. 간단하게 감자튀김과 아이스크림을 시켜 먹으며 실내 공간을 구경하던 찰나, 너무나 익숙한 사물이 내 눈에 들어왔다.

씽씽이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비를 피해서 들어온 롯데리아에서 저 씽씽이를 우연히 발견한 상황 자체가 코미디 같았다. 며칠 전에 길거리에서 상처 투성이었던 푸른 씽씽이를 발견 했었는데, 이제는 롯데리아에서 손잡이까지 달려있는 멀쩡한 씽씽이를 발견할 줄이야. 손에 들고 있던 감자튀김을 놓고 급히 일어나서 사진부터 찍기 시작했다.

이전에 발견했던 푸른 씽씽이와는 다른 점이 몇 가지 보였다. 바로 알 수 있는 차이점이라면 역시 색상이다. 색상까지 똑같았다면 얼마나 더 반가웠을까.

또 아주 큰 차이점 하나가 존재했는데,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것은 맞지만 푸른 쟁쟁이 와는 모델이 달랐다. 다른 발판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고, 바퀴 역시 투명한 고무 재질이 아니었다. 색상은 그렇다 쳐도 최소한 같은 모델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건 사실이다.

롯데리아에서 다시 쟁쟁이를 마주했을 때, 반가움과 동시에 어딘가 당황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마치 여기서 만나면 안 될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기분이 참 묘했다. 살면서 사물한테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보다니. 기이한 경험이긴 했지만 예측 할 수 없는 우연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이 아닐까. 이런 의미 없는 경험담이 글로써 쓰이는 것을 보면.





토

담배기둥	25.05.03 15:00	131쪽
동묘 구제시장 골목길		



이곳은 주민의 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场所



토

과거와 오늘 24.07.06  
16:00 135쪽

경기도 파주시 금촌통일시장 길 골목







토

나뭇잎 창문 25.06.03 139쪽  
18:00

군자역 앞 저택 건물





나뭇잎 창문과 함께 발견 된 내려올 수 없는 계단



일

롯데아울렛 24.03.10 143쪽  
12:00

등촌최월선칼국수 옆



연식이 오래된 주거물에는 재미있는 사물과 이미지들이 즐비하다. 사진에 보이는 건물은 원조 등촌칼국수 집인 등촌최월선칼국수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발견했던 빌라 건물이다.

이 빌라에는 아주 재미있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롯데아울렛’이라는 초록색 천막 지붕이 건물 아래쪽에 뻔뻔하게 달려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편의점이 거리를 지배하기 전, 개인이 운영하는 마트와 상점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천막이, 빌라 아래쪽에 유머스럽게 달려 있었다. 저런 천막은 정말 어렸을 때 목격하고 최근에는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역시 오래된 거리와 과거의 흔적이 많이 쌓여있는 장소에는 반가운 얼굴들이 많은 것 같다.



# 일

나무가족	24.08.25 13:00	147쪽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고석정		







일

1인용 문 24.08.11 151쪽  
14:00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근처







일

간판	24.04.21 17:00	155쪽
일산 가구단지		





어릴 때부터 나는 한국의 도시 광경을 망치는 주범이 간판에 있다고 생각했다. 너무나도 강렬한 색, 간판의 거의 모든 면적을 차지 할 만큼 거대한 글자 크기, 가게와 어울리지 않는 서체들. 이렇게 생산된 간판들이 모여 이상하고 난잡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주변 조경이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이런 간판만 보면 거리가 간판들의 힘에 눌리는 것 같다.

가끔은 간판을 제작하는 가게들이 원망스러웠다. 도대체 이렇게 특색없는 간판들을 왜 계속 찍어내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었다.

각설하고 우리는 앞선 간판 사진을 보고 분명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정말 난잡한 광경이라는 것. 도시 조경으로써는 최악이고 오히려 간판들이 서로의 존재를 뽑내고 있는데, 모두 본인 가게로 들어오라고 외치고 있는 듯 하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과 티페스티벌

일산 가구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불비는 한국의 모든 도시에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간판의 사이즈는 서로 경쟁하듯 끈임없이 커지고, 타 간판보다 어떻게든 눈에 먼저 띠어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강렬한 색을 선택한다. 이런 경쟁이 모인 건물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다. 건물의 외형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간판들에게 둘러쌓이게 되며 이게 건물인지, 간판 전시장에 온 것인지 가늠이 안갈 정도이다.

개인적으로는 경쟁의 과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 건물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외부인에게 홍보를 하려고 하니 경쟁은 과열 될 수 밖에 없다. 사이즈는 서로 커지며 색의 경쟁, 글자 크기가 계속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선을 훔치는 강렬한 색은 사용할 수 없겠지만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제일 눈에 띠는 색만 고른 것들이 저것들일 것이다. 우린 이런 난잡한 풍경의

## **도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거리 다시보기

권호준 지음



@hojoonkwon

sokai1018@naver.com

[www.jackcube02.github.io/hojoonweb](http://www.jackcube02.github.io/hojoonweb)





